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17:00 배포 2026. 11. 12.(목) 06:00

제주 감귤, 검역협상 타결 8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 중앙아시아 공략 본격화

- 감귤 2톤 항공 초도 수출 이어 11월 중순 39.2톤 추가 선적… 이달만 약 41톤 공급
- 감귤·키위·무 수출통합조직 3개사, 몽골·러시아·싱가포르 등에 약 126톤 합동 선적
- 몽골 11월 28일 현지 판촉, 우즈베키스탄 12월 현지 런칭 행사로 초기 안착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위성곤, 이하 '제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12일(목) 오후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제주시농협 주관으로 '우즈베키스탄 감귤 초도 수출 및 제주 농산물 합동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올해 3월 양국 간 검역협상이 타결된 지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제주 감귤의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감귤·키위·무 수출통합조직 3개사도 몽골·싱가포르 등 6개국으로 향하는 126톤의 농산물을 함께 선적하며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냈다.

1. 검역협상 타결 8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11월 41톤 수출 예정

우즈베키스탄 감귤 수출은 정부와 산지가 함께 길을 열어 온 결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2월 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 수출을 희망하는 현장 의견을 접수한 직후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2월 우즈베키스탄에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며 검역협상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감귤류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선정해 협상에 속도를 냈고, 3월 양국 간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렇게 신속히 협상이 성사된 데에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국가검역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6월 30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하고, 제주시농협·조천농협·제주감협무역사업소 등 3개소를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산 감귤 수출이 타결된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까지 5개국으로 늘었다.

한국감귤수출연합은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차관, 검역기관장 등 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수출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회원사인 제주시농협은 지난 8월 수출업체 성신엘앤피, 현지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코르진카(Korzinka)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항공편으로 수출되는 2톤의 감귤은 인천공항을 거쳐 코르진카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

초도 물량에 이어 11월 중순에는 조천농협에서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39.2톤)의 감귤이 부산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한다. 이로써 이달에만 약 41톤의 제주 감귤이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된다.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만다린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만다린 수입량이 4만 5,600톤(2,33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2. 감귤·키위·무 수출통합조직, 6개국 품목 장벽 넘어 '합동 선적'

이날 제주지역 3개 수출통합조직은 감귤 100톤, 키위 25톤, 무 1톤 등 모두 126톤을 한데 모아 합동 선적했다. 품목별로는 감귤이 몽골·러시아·싱가포르·홍콩·미국으로, 키위가 몽골·일본 등으로, 무가 몽골로 향한다.

특히 몽골에는 감귤·키위·무 3개 품목이 모두 선적된다.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3개사가 산지의 수출 물량을 같은 날 출고하는 방식으로, 품목의 경계를 넘어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동 마케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모범 사례를 남겼다.

참석자들은 선적식에 이어 산지유통센터의 인공지능(AI) 선별 자동화 시스템 등 수출 감귤의 선별 및 품질관리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3. 몽골·우즈베키스탄 현지 홍보로 초기 시장 안착 추진

선적에 이어 현지 밀착 홍보도 본격화된다. 몽골에서는 오는 11월 28일 이번에 함께 선적한 제주산 감귤·키위·무를 알리는 대규모 판촉·홍보 행사가 열리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월 한국감귤수출연합 주관으로 현지 런칭 행사를 개최해 제주 감귤을 처음 접하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맛과 품질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출검역단지의 병해충 관리와 철저한 수출 검역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지 소비자 반응과 유통 성과를 바탕으로 만감류, 키위 등 제주 농산물의 수출 품목과 영토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제주시농협 고봉주 조합장(한국감귤수출연합㈜ 대표)은 “검역 기준에 맞춰 정성껏 선별한 제주 감귤이 우즈베키스탄 소비자의 식탁에 처음 오르게 됐다”며 “이달 중순 컨테이너 물량과 12월 현지 런칭 행사로 이어 가 첫 수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키위·무 세 품목의 수출 통합조직이 함께 수출길에 오른 것은 제주 농산물이 힘을 모아 새 시장을 두드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수출 규격 확대처럼 현장에 필요한 제도는 신속히 정비하고, 만감류·키위 등 제주 농산물이 새로운 시장에 꾸준히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2월 수입허용을 요청한 지 1년여 만에 검역협상을 타결하고, 8개월 만에 첫 선적까지 이어진 것은 정부와 산지가 속도를 함께 맞춘 결과"라며, "신선농산물은 검역의 문을 넘어야 수출이 시작되는 만큼, 수출 유망 품목과 국가의 검역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농산물이 나갈 수 있는 시장을 계속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우즈베키스탄 감귤 초도 수출 선적식 개요
2. 감귤 수출 현황 및 제주지역 수출통합조직
3. 현장 사진(행사 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총괄>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이미영 (044-201-2176)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54-912-1621)
		담당자	연구관	전옥경 (054-912-063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책임자	과 장	양행석 (064-710-3190)
		담당자	사무관	김용범 (064-710-31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우즈베키스탄 감귤 초도 수출 선적식 개요

□ 추진 배경

○ 한국산 감귤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협상 타결('26.3월) 및 수출검역요령 제정('26.6.30.)에 따른 첫 수출 기념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 11. 12.(목) 14:00 /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제주시)

○ **(주관)** 감귤수출통합조직(한국감귤수출연합㈜·제주시농협

○ **(참석)** 농식품부, aT,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협제주본부, 수출통합조직, 생산자·수출업체 등

□ 주요 내용

○ 선적식, 산지유통센터 수출선별장 견학, 유관기관·생산자·수출업체 간담회

□ 선적 물량

○ **(우즈베키스탄 초도 수출, 항공)** 감귤 2톤

○ **(3개 통합조직 합동 선적)** 감귤 100톤, 키위 25톤, 무 1톤 등 126톤(6개국)

* (몽골) 감귤, 키위, 무, (러시아·싱가포르·홍콩) 감귤, 키위, (미국) 감귤, (일본) 키위
감귤 총 100톤(우즈베키스탄 2톤 제외), 키위 25톤, 무 1톤

□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 추진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25. 2.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산 감귤류 수입허용 최초 요청(검역협상 개시)
2026. 2. 11.	감귤류(우즈베키스탄) 2026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2026. 3.	양국 간 수출검역협상 타결
2026. 6. 30.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6-26호)
2026. 7.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단지 3개소 지정(제주시농협·조천농협·제주감협무역사업소)
2026. 8. 18.	제주시농협-성신엘앤피코르진카 간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타슈켄트)
2026. 10. 16.	제주시농협-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간담회(감귤·만감류 등 수출 확대 논의)
2026. 11. 12.	우즈베키스탄 감귤 초도 수출 선적식(제주시농협, 2톤 항공 수출)
2026. 11. 중순	조천농협 감귤 40피트 컨테이너 2대(39.2톤) 수출 예정
2026. 12.	한국감귤수출연합 주관 우즈베키스탄 현지 런칭 행사 예정

붙임 2 감귤 수출 현황 및 제주지역 수출통합조직

□ 국가별 수출실적('26.10월 잠정)

○ '26.10월 말 기준(잠정) 159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7% 증가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 10월		2026. 10월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3,440.9	4,600.2	3,964.6	4,817.8	3,586.9	5,646.1	2,445.6	4,122.1	229.3	1,189.2	316.4	1,589.5	38.0	33.7
러시아	1,761.6	1,317.7	2,229.1	1,875.5	1,910.7	1,836.7	1,259.8	1,259.6	26.3	41.9	38.8	98.4	47.4	135.0
미국	337.6	496.1	360.2	762.6	325.7	907.9	251.9	747.6	95.6	503.2	99.6	537.0	4.1	6.7
싱가포르	225.0	963.7	214.7	430.5	185.3	1,012.0	141.1	620.0	43.1	339.8	74.5	481.6	72.7	41.7
몽골	34.2	80.5	43.9	92.2	74.8	153.7	219.4	398.4	9.0	43.4	16.5	78.1	84.1	79.9
캐나다	542.3	565.0	491.7	495.8	558.2	611.8	239.1	266.0	18.1	24.0	12.9	66.2	△28.5	175.4

* 자료: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제주 지역 수출통합조직 현황

○ **(감귤)** 한국감귤수출연합㈜(대표 고봉주), '21.12.31. 지정, 53개 회원사 (생산자 23, 수출업체 30)

○ **(키위)** 한국키위수출㈜(대표 고혁수), '22.12.29. 지정, 29개 회원사 (생산자 11, 수출업체 18)

○ **(무)** 한국무수출㈜(대표 강금란), '23.12.27. 지정, 37개 회원사 (생산자 12, 수출업체 25)

□ 한국감귤수출연합 신규시장 개척 성과

○ **(몽골)** 수출 물량 51톤('22~'24년 평균) → 219톤('25년), 만감류 추가로 품목 다변화

○ **(우즈베키스탄)** 업무협약 체결 및 현지 주요 관계기관 협의(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차관·검역기관장 등)를 통한 수출 기반 마련

○ **(수출 규격)** 제주시와 협의하여 수출 가능 규격 확대(중소과 → 대과)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4항, 「2026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36호)

붙임 3 현장 사진(행사 후 제공)

① **(선적식)** 우즈베키스탄 초도 수출 선적 세리머니

② **(현장 견학)** 산지유통센터 수출선별장 견학

③ **(간담회)** 유관기관·생산자·수출업체 간담회